

미나토구 평화도시 선언

둘도 없는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참된 평화를 바라며,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사는 보람에 가득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향토, 아름다운 대지를
장래에 태어나, 성장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것을
바라는 동시에, 이에 더 넓게는 핵무기의 폐지를
호소하고, 마음으로부터 평화의 바람을 모아,
미나토구가 평화도시인 것을 선언합니다.

1985년 8월 15일

미나토구